

## 국가건설기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조직과 정치세력 구성

김선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 논문요약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 비해 정치적 저항, 정치사상, 사회안전, 주민생활, 경비임무에 관한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다. 내무국은 미군정 경무부에 비해 범죄수사와 정보사찰, 국내-국경경비, 주민통제와 주민생활, 사회안전 등의 업무를 특화해서 국내외의 위협과 혼란으로부터 국가건설활동과 정권기반을 보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내무국은 치안권과 함께 일부 사법권-군권을 보유하고 됨으로써 북한의 사회 영역에 압도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내무국은 보안국이 담당했던 군대창설과 '보위' 임무가 대대부로 이관된 이후에 치안유지, 국내-국경경비, 사회관리에 관한 임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지방인민위원회의 행정부서 중에서 내무기관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군 단위에 더 많은 내무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분활동·생활에 대한 정보를 여러 층위에서 다양하게 취합하고, 주민과 사회를 지역 단위에서 관리하고 통제했다.

내무국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정치연합체제였지만, 보안국과 달리 중앙부서에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임명되지 않았고, 중앙간부는 항일연군 출신과 정치적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박일우가 내무국장을 맡으면서 내무국과 내무국군대에 조선의용군 출신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권력 내부에서 인민집단군과 내무국군대를 각각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이 책임지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결국 북한의 정치세력은 내무국을 설립해서 국내-국경의 경비체계, 정치활동·사상동향 조사, 정치사상업무, 사회관리, 주민생활 관리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공간과 정치공간을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련의 정보·방첩·특수공작 방식이 내무국을 통해 북한의 지역과 사회에 확산되면서 강제와 설득을 배합한 북한식 사회관리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제어: 북한 경찰, 내무국군대, 인민군, 내무서,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 정치연합체제, 박일우



## I. 서론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6년 2월 8일에 소련군사령부와 함께 북한지역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생활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에 ‘보안국(保安局)’을 설치했다. 보안국은 북한지역의 친일파와 반소(反蘇)·반북(反北)세력을 척결하는 한편, 38선 경비 등 각종 경비사업, 공민증 교부사업, 식량 수송, 방역, 소방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sup>1)</sup>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년 동안 활동한 이후 1947년 2월 22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이와 동시에 보안국은 ‘내무국(內務局)’으로 개편되었으며, 내무국은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자 ‘내무성(內務省)’으로 승격되었다. 내무국은 치안 유지, 정치적 저항과 테러 적발, 38선·국경·해상·철도 경비, 교화소(敎化所)·소방·위생·민적(民籍)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보건 등 전반에 관여했다. 따라서 내무국은 국가건설기에 북한의 정치세력이 내부의 치안·사회·주민생활 등을 어떤 체계와 방식을 통해 유지하고 관리했는지 알 수 있는 주제다.

잘 알려져 있듯 근대국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적 복합체로서 국가의 존립을 정당화하고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수단을 갖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한 폭력의 독점’이다.<sup>2)</sup> 북한에서 국가의 공식적인 경찰기관은 1948년 9월에 만들어진 내무성이었다. 그러나 내무국은 국가 수립에 앞서 약 1년 6개월 동안 보안무력을 독점하면서 북한의 치안·사회·주민생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했다. 따라서 내무국의 조직과 활동은 북한의 정치세력이 사회와 주민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근대국가를 수립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다.

1) 北朝鮮人民保安局, 『北朝鮮保安事業 總結報告』, 평양: 北朝鮮人民保安局, 1946. 11. 19, pp. 2-7.

2) 잔프랑코 푸지 지음, 박상섭 옮김, 『근대국가의 발전』, 서울: 민음사, 1995, pp. 154-156.

지금까지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다만 북한의 경찰기관을 연구하면서 내무국에 대한 일부 사실이 해명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내무국의 조직체계와 담당업무가 부분적으로 밝혀졌다.<sup>3)</sup> 그리고 북한의 인민보안부와 인민보안성을 다룬 연구에서 내무국의 설립과정과 사회관리방법이 분석되었다.<sup>4)</sup> 한편 내무국의 전신인 보안국의 조직구성과 활동내용을 분석한 연구성과가 있다.<sup>5)</sup>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무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명해야 할 사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내무국 중앙과 지방의 조직체계, 부서 구성과 각 부서의 담당업무, 내무국이 관할한 내무국군대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내무국의 중앙간부도 내무국장 박일우(朴一禹)만 알려져 있으며, 부장·처장과 지방의 내무부장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sup>6)</sup> 그리고 조선의용군(朝鮮義勇軍)·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고려인(高麗人)·국내공산주의자 등 내무국에서 활동한 각 정치세력의 분포와 간부구성의 특징도 해명되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전체적인 조직체계, 담당업무, 정치세력 구성을 자료를 통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첫째, 이 글은 내무국의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밝히고 각 부서가 북한지역에서 수행한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내무국의 조직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의 중앙조직, 미군정 경무부의 중앙·지방조직과 비교함으로써 내무국의 조직구성이 갖는 특징을 해명할 것이다. 둘째, 이 글은 내무국의 중앙간부를 밝히고 이들의 해방 전후 경력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무국에서 활동한 각 정치세력의 역할분담을 확인

3) 연정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史林』 61호, 2017, pp. 215-246.

4) 신현기,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12권 2호, 2002, pp. 141-162;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p. 52-67; 김용환,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5권 2호, 2017, pp. 51-88.

5) 김선호, “해방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현실』 86호, 2012, pp. 293-324.

6) 선행연구는 내무국 중앙의 3개 처와 17개 부, 사군 내무서의 7개 계를 밝힌 바 있다. 연정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pp. 225-227.

하고 정치세력 구성의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이 글에서 새로 확인한 내무국의 부서는 54개 과이며, 새로 밝힌 내무국의 간부는 21명이다.

## II. 내무국의 설립과 중앙조직의 구성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金日成)은 1947년 1월에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1947년도의 목표를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에 따라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인민위원회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sup>7)</sup> 이에 따라 북한의 정치세력은 2월 19일에 입법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립했으며, 북조선인민회의는 2월 22일에 정권기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했다.<sup>8)</sup>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적 정권기관이었다. 이와 달리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대표와 위원들이 선거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임시적 성격이 없는 정상적(經常的) 정권기관이었고, 제2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기반을 구축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sup>9)</sup> 그리고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정권기관에 대한 행정지휘권은 소련군사령부에서 북한정치세력에게 이양되었다.<sup>10)</sup>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4개 국과 4개 부로 구성되었다.<sup>11)</sup>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은 1947년 2월 22일에 내무국으로 개편되었다. 내무국의 중앙부서는 3개 처, 17개 부, 54개 과로 구성되었다. 3개 처는 보안처·정보처·경비처였고, 보안처는 다시 검찰부·호안부(護安部)·인민통계

7) 金日成, “新年을 맞이하여 全國人民에게 告誡.” 北朝鮮人民委員會 宣傳部, 『金日成 重要報告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樹立의 道』, 평양: 民主朝鮮出版社, 1947. 1. 1, p. 160.

8) “해방후 4년간 국내의중요일지.”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 『북한관계사료집(이하 사료집)』 7권, pp. 670-674.

9) 북한정치세력의 2단계 혁명론은 1945년 10월 10~13일에 열린 서북5도당책임자 급 열성자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되었다. 朝鮮産業勞動調査所 編, “붉은 路線(民衆新聞社出版部, 1946).” 김남식 외 엮음, 『韓國現代史資料叢書』 11권, 서울: 돌베개, 1986, pp. 465-466.

10) 기광서, “북한 무력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研究』 28권 3호, 2004, p. 218, 각주 8번.

11)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北朝鮮人民會議 第一次會議 會議錄』, 평양: 勞動新聞社, 1947, pp. 47-50.

부·통운검사부로 구성되었으며, 경비처는 경비부와 국경경비부로 구성되었다.

정보처는 내무국 설립 당시에는 조직되지 않았다가 1947년 3월 17일에 신설되었는데, 정보부·심사부·통계부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8개 부는 간부부·문화부·경리부·문서부·교화부·시설부·사회부·소방부였다.<sup>12)</sup> 내무국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업무인 치안유지와 사회안전 업무 외에도 미군정의 사법부에서 관장하는 교화소 업무와 주한미군이 담당하던 국경경비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는 점이다.

중앙부서 중에 사회부·문서부·통운검사부는 보안국에 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 있던 업무가 내무국으로 이관되면서 새로 설치된 부서다. 통운검사 업무는 지방통운국에서 사증과(査證課)와 해사과(海事課)를 인수한 것이고, 사회업무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총무부에서 인수한 것이며, 문서업무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서기장실에서 인수한 것이다.<sup>13)</sup> 이 같은 업무인수 결과, 내무국은 해상 출입문제 등 해상 관련 업무,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문서업무, 북한지역의 종교단체·사회사업단체·고아원·양로원·피난민·전재민·불구자·노인·마약중독자·객사자·출소자 등에 관한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었다.

내무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이 담당했던 보안간부훈련소·평양학원·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가 보안간부훈련대대부(保安幹部訓練大隊部, 이하 대대부)로 이관되면서 군대 창설에 관한 업무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해상·사회·문서 관련 업무가 새로 부여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또한 내무국은 보안국과 간부 편제가 달랐다. 보안국의 각 부에는 부장만 배치되었으며, 이와 달리 각 도인민위원회 보안부에는 보안부장을 보좌하는 부부장(副部長)이 배치되었다.<sup>14)</sup> 내무국은 각 도인민위원회에 있던 부부장(副部長) 제도를 중앙에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먼저 각 처에는 처의 정치·사상·사업과 당 사업을 전담하는 문화부처장(文化副處長)제도가 신설되었다. 대표적으로 경비처

12) 보안국장 박일우, “內務局部署 實施에 關한 注意事項(1947. 2. 1).”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9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 p. 63; 내무국 보안처 감찰부, “제2회 각도 및 특별시·철도·수상 감찰과장회의록(1947. 12. 21).” 국편, 『사료집』 9권, p.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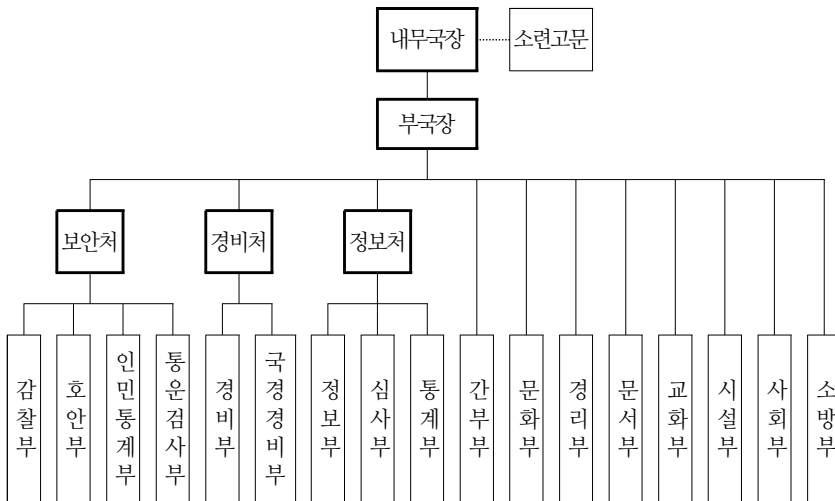
13) 보안국장 박일우, “內務局部署 實施에 關한 注意事項(1947. 2. 1).” 국편, 『사료집』 9권, p. 63.

14) “제2회 각도 보안부장회의록(1946. 7. 3).” 국편, 『사료집』 9권, p. 225.

에 문화부처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김한중(金漢中)이 문화부처장으로 배치되었다.<sup>15)</sup>

다음으로 보안부부장(保安副部長)제도가 신설되어 보안부부장이 보안처의 감찰부·호안부·인민통계부·통운검사부를 직접 취급했다. 내무국의 소방부·사회부·문서부·경리부·문화부에는 부부장이 1명씩 배치되어 부장을 보좌해 담당사업을 취급했다. 반면에 정보부·경비부·간부부는 부부장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장이 담당사업을 직접 지도했다.<sup>16)</sup> 부부장이 배치된 부처는 공통적으로 다른 기관의 업무가 새로 이관된 부서다. 따라서 내무국은 이관받은 감찰·호안·인민통계·통운검사업무를 시급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안부부장을 별도로 설치한 것이다. 내무의 중앙조직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내무국의 중앙조직<sup>17)</sup>



15) “내무국 경비처 당부 조직에 대하여(1948. 2. 28).” 국편, 『사료집』 30권, pp. 346-347.  
 16) 보안국장 박일우, “內務局部署 實施에 關한 注意事項(1947. 2. 1).” 국편, 『사료집』 9권, pp. 63-64.  
 17) 내무국의 중앙조직은 다음 연구에서 처음으로 체계화했다. 연정은, “북한 정치정보위국의 형성과정.” p. 226.

한편 내무국에는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무력이 배속되었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 조직된 각종 보안대와 경비대는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보안국이 관할했다. 보안국은 경비부를 통해 철도경비대·국경경비대·38경비보안대·수상보안대를 지휘했다.<sup>18)</sup> 또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병종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1946년 7월 8일에 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를 설립했다.<sup>19)</sup> 이와 별도로 북조선공산당은 1946년 1월 3일에 고급 정치군사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평양학원을 설립했다.<sup>20)</sup>

그러나 1946년 8월 15일에 군사지휘기관으로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창설되자 보안간부훈련소·평양학원·북조선중앙보안간부학교는 보안국에서 분리되어 대대부로 이관되었다. 이후부터 대대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군대를 창설했다. 또한 대대부에는 각종 참모부서가 설치되어 군대창설의 각종 부문을 전담했으며, 특히 간부부가 설치되면서 대대부가 군사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sup>21)</sup> 보안국이 겸임하고 있던 군대창설과 ‘보위’ 임무가 대대부로 이관되면서 내무국은 치안유지와 국내·국경경비임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보안국에서 관할하던 무력도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내무국에 소속되었다. 내무국은 1947년 10월 당시 ‘제79기마대대, 철도보안대대, 수상보안대대, 독립보안여단, 수상보안간부학교’를 관할하고 있었다. 내무국은 제79기마대대·철도보안대대·수상보안대대를 통칭해서 ‘독립대대’라고 명명했다.<sup>22)</sup> 또한 내무국은 보안국의 예하에 있던 38경비보안대와 국경경비대도 관할했다.<sup>23)</sup> 내무국군대를 관장한 부서는 경비부와 국경경비부로 구성된 경비처였다.<sup>24)</sup>

18)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 7. 3).” 국편, 『사료집』 9권, pp. 236-237.

19)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1946. 7. 8).” 국편, 『사료집』 5권, pp. 665.

20) “해방 이후 4년간의 국내외중요일지.” 국편, 『사료집』 7권, p. 588.

21)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 中卷, 서울: 兵學社, 1977, pp. 28-29.

22) 내무국장 박일우, “제복 및 건강 등급규정에 관한 지시(1947. 10. 9).” 국편, 『사료집』 9권, p. 90.

23) “황해도내무부 사업에 대한 諸點(1947. 5. 23).” 국편, 『사료집』 9권, p. 392;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 과장회의록(1946. 7. 16).” 국편, 『사료집』 9권, p. 274.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시기에 보안국이 관할하는 무력은 각 부대이름으로 불렸을 뿐 통일된 명칭이 없었다. 그러나 내무국이 관할하는 무력에는 통일된 명칭이 부여되었다. 김일성은 1948년 5월 11일에 북조선인민위원장의 자격으로 내무국 독립보안여단 군관회의에 참석했는데, 독립보안여단을 ‘내무국군대의 골간’이라고 명명했다.<sup>25)</sup> 따라서 북한지역에는 1947년 5월 이후에 ‘인민집단군’과 ‘내무국군대’라는 두 가지 형태의 군대가 존재하게 되었다.<sup>26)</sup> 군대를 정규군과 내무군으로 구분하는 전통은 1919년에 국경군·철도군 등 정규군의 지원임무부대로 창설된 소련의 ‘내무방위군(內務防衛軍, VOKHR)’에서 비롯된 것이다.<sup>27)</sup>

내무국군대와 보안무력의 차이점은 내무국군대에 본격적으로 군사적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내무국은 인민집단군에서 사용하던 “군대 내무규정”을 도입했으며, 내무국 산하 각 보안대에는 보안원의 복장과 행동을 단속하는 풍기사령(風紀司令)을 임명했다. 그리고 제복을 착용한 보안대원은 “군대 내무규정 제20조”에 따라 동급 간이나 상급에게 행례(行禮)를 하도록 규정되었다.<sup>28)</sup> 즉 내무국이 출범하면서 행정기구의 군사화가 강화되었고, 내무국군대에는 군사규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내무국이 군사계급과 제복을 도입한 이후에 군사화되었고, 이 같은 군사화가 소련 내무부(MVD)의 조직성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sup>29)</sup>

내무국군대에 관한 행정 사항은 모두 내무국 경비처가 관장했다. 그러나 내무서원과 내무국군대 군인들의 군기(軍紀) 단속에 관한 사항은 보안처 호안부가 담당했으며, 내무국군대 군인들의 군사범죄와 일반범죄에 관한 사항은 보안처 감찰부가 취급했다. 또한 내무국군대 군인 중에 정치범에 관한 사항은 내무

24) “北朝鮮人民委員會 內務局 機構 及 事務分掌(1947).” 국편, 『사료집』 9권, p. 65.

25) 김일성,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보위하는 강유력한 인민의 무력이 되어야한다(1948. 5. 11).” 『김일성전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24-26, 29.

26) 보안간부훈련대대는 1947년 5월 17일에 북조선인민집단군총사령부로 개편되었다. 김선호, 『조선인민군』, 서울: 한양대출판부, 2020, p. 353.

27)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pp. 128-129.

28) 내무국장 박일우, “제복착용규정에 관한 지시(1947. 5).” 국편, 『사료집』 9권, pp. 59-61.

29) HQ, USAFIK, “ISNK, No.47(1947. 10. 15~10. 3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이하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권,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 458.

국 정보처가 관할했다.<sup>30)</sup> 내무국은 행정기구의 군대화를 위해 새로운 부서도 조직했다. 내무국의 중앙부서 중에서 경비처 경비부는 1947년 11월에 일부 개편되었는데, 병기과(兵器課)가 신설되었다.<sup>31)</sup> 내무국은 내무국군대가 사용하는 무기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별도의 과를 만든 것이다.

내무국의 각 부처는 고유의 담당업무를 맡았는데, 중앙부서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1〉 내무국 중앙부서의 사무분장<sup>32)</sup>

부서명		사무분장
보안처	감찰부	국내(國內) 일반정보, 피의자현행범증인 소환·체포·취급심사, 범죄수사증거수집, 지문 법의(法醫)연구, 일반경비·특별경비, 감찰통계.
	호안부	공장기업소·광산·공사장 등의 원동기·화학류·화학자장소 취급단속, 인화물질 취급 단속, 수렵·엽총 단속, 수도·전기·와사(瓦斯)·건축물 단속, 위생청소·접객업자위생·무허가업자 단속, 마약·독약·극약·도살 단속, 도량형기 제작단속, 물가 조사·조절, 물자교역·여행증명, 비행(非行)·관계·풍속·풍기 단속, 호안통계.
	인민통계부	공민증 취급·단속, 민적 취급, 인민통계.
	통운검사부	자동차 검사, 제 차륜 감찰, 자동차 운전수 면허, 차륜적재물 취급단속, 선박 검사·감찰, 선박기술자 면허, 교통 정리단속, 통운통계.
경비처	경비부	철로·통신·역내(驛內)·창고·철교·도로·기타시설물 보호, 일체 중요물자 수송경비, 철도사고 미연방지, 역내·객차내 위생, 여객질서 유지, 철도규칙위반자 단속, 경비전화·기타통신설비 보호, 중요기관·중요시설물·중요공장·기업소 경비보호, 특별경비배치, 대원문화향상·군사훈련지도, 교재(教材)모집, 경비통계.
	국경경비부	국경경비, 해안경비, 해저통신·시설 보호, 항행(航行)·선박 보호, 어선보호·밀수 단속, 해상검역 협조, 난파선 구조, 밀항선·밀항인 단속, 무허가물자 교역 단속, 밀수출입 단속, 국경자위대 조직, 국경사찰, 사찰기술연구.
정보처	정보부	특별정보사업, 특별정보사업에 관한 기술연구, 특별정보통계, 국내(國內) 정보 연락, 피의자·현행범·증인 소환·체포, 범죄수사·증거수집, 지문·법의(法醫)연구, 우정(郵政)취급, 정보통계.

30) 내무국장 박일우, “사업한계에 관한 지시(1947. 11. 23).” 고려서림 편집부,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1권, 서울: 고려서림, 1998, pp. 220-227.

31) “청내전화번호부(1947. 11).” 국편, 『사료집』 9권, p. 106.

32) “北朝鮮人民委員會 內務局 機構 及 事務分掌(1947).” 국편, 『사료집』 9권, pp. 64-73.

정보처	심사부	사건심사사찰, 심사공작 기술연구, 교화장 감독, 심사통계.
	통계부	정보통계.
간부부		인사입면, 간부심사, 간부감찰, 간부배치, 간부양성, 인사상별, 간부통계, 국내(局內) 직원복무기율.
문화부		정치문화교육에 관한 선전조직지도·검열과 교재 모집·편집, 정치문화교육통계.
경리부		금전출납장부 기재정리, 제 예산 편성심사, 무기수리관리, 피복제조제화(製靴) 수리·출납, 양곡 수불(收拂), 자동차기타차륜 관리·수리, 자동차공장·창고 관리, 물품공급, 청사사택 관리·경영, 국(局)직원 당직숙직, 경리통계.
문서부		인민위원회 문서 정리·등록·보관, 문서통계, 통신연락, 문서 정사(淨寫), 보통 문서비밀문서 취급, 제 식전회의(諸 式典會議) 연락, 국원증명서 취급, 서무통계.
교화부		제소자 교화방법연구, 제소인원배차작업계획통계, 기결자 노무조직배치, 제작품 판매자재공급, 특별노무직장 조사, 특별노동조직 배치, 교화통계.
시설부		시설에 대한 제 계획통계, 시설자재 구입·공급, 도로·교량 신설·수리, 항만 준설·건축·개조, 하천사용허가, 시설에 대한 노력조직.
사회부		종교단체 사향, 사회사업단체 감독, 고아원양로원 관리, 피난민전제민 구제, 불구자·노인·마약중독자 처리, 객사자 취급, 출소자 직장알선, 사회부통계.
소방부		도시농촌소방조직, 소방훈련, 일체 소방시설 조사정리, 방화(防火)·방수 선전, 소방용연료 분배, 소방기구 제작, 수재·화재·전재(電災) 조사통계.

내무국의 보안처는 내무국에서 가장 큰 부서였으며, 북한지역의 치안유지를 담당했다. 정보처는 비밀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반정부활동을 탐지하는 업무와 방첩(防諜)활동을 수행했다. 경비처는 내무국에 소속된 보안무력을 관장하는 부서였다.<sup>33)</sup> 보안처 감찰부는 범죄수사·일반경비·특별경비업무를 담당했으며, 호안부는 폭발물·화약류·총기 등 사회안전업무와 건축·위생·의약품·도량형·가물·가풍속 등 주민생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인민통계부는 공민증·민적(民籍)·통계업무를 담당했으며, 통운검사부는 자동차·차륜·선박업무를 담당했다.

33) HQ, USAFIK, “ISNK, No.47(1947. 10. 15~10. 30).”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권, pp. 459-460.

경비처 경비부는 지방보안대대, 철도보안대, 수상보안대, 중요시설 특별경비대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고, 경비처 국경경비부는 38경비보안대와 조만국경경비대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다. 정보처 정보부는 반정부활동, 전복활동, 간첩활동 등 특별정보사업과 우정(郵政)업무를 담당했으며, 정보처 심사부는 사건심사와 교화장 감독업무를 맡았다.

보안처 검찰부와 정보처 정보부는 피의자·현행범·증인의 소환·체포·취급·심사, 범죄수사와 증거수집, 지문·법의학(法醫)연구 등 담당업무가 중복되었지만 각각 다른 사건을 취급했다. 정보부는 ‘정치범 취급업무’, 즉 반정부사건·전복사건·간첩사건 등 정치사건을 취급한 반면, 검찰부는 정보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취급했다.<sup>34)</sup>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년 3월에 내무국에 정보부를 신설했는데, 그 이유는 1946년도에 북한지역에서 토지개혁, 산업국유화, 미·소공동위원회 등을 반대하는 정치적 저항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1946년 한 해 동안 북한지역에서는 총 8,926명이 정치적 저항행위로 처벌받았다. 이 중에서 1,927명은 남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다.<sup>35)</sup>

내무국 중앙부서 중에서 처에 소속되지 않고 단독으로 설치된 부서는 부서에 따라 관할지역이 달랐다. 내무국 간부부문화부·경리부·문서부는 내무국 중앙과 지방의 각 전문분야를 담당했으며, 교화부·시설부·사회부·소방부는 전체 북한지역의 교화소·시설·사회·소방부문을 담당했다.

그런데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의 중앙부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의 중앙부서, 미군정 경무부의 중앙부서와 큰 차이가 있었다. 내무국·보안국·경무부의 중앙부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4) 내무국 보안처 검찰부, “제2회 각도 및 특별시·철도·수상 검찰과장회의록(1947. 12. 21).” 국편, 『사료집』 9권, p. 282.

35) 김광운 편, “소련민정청 3개년사업 총결보고서.” 『북조선실록』 1권, 서울: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 2018, p. 530.

<표 2> 내무국보안국과 미군정 경무부의 중앙부서<sup>36)</sup>

내무국		보안국		미군정 경무부		
보 안 처	감찰부	감찰과, 심사과, 감정과	감찰부	감찰과, 정보과, 교화과	수사국	특무과, 정보과, 감식과, 총무과, 법의시협소
	호안부	원동기과, 화약과, 위생청소과, 호안과	호안부	호안과, 조사과, 소방과	공안국	기획과, 공안과, 여자경찰과, 경비과
	인민통계부	공민증과, 민족과				
	통운검사부	차문검사과, 해사검사과, 등대관리과				
경 비 처	경비부	해안경비과, 철도경비과, 통신경비과, 기관경비과, 공장경비과	경비부	경비과, 철도과, 수상과		
	국경경비부	국경경비과, 밀수방지과, 사찰과				
정 보 처	정보부					
	심사부					
	통계부					
간부부	제1과, 제2과, 제3과, 제4과					
문화부	선전과, 교육과			교육국	교육과, 교양과	
경리부	서무과, 회계과, 창고과, 병기과, 피복과, 양식과	총무부	인사과, 경리과, 서무과	총무국	인사과, 경리과, 용도과	
문서부	문서과, 문서정리등록과, 기요과, 문서보관과					

36) “北朝鮮人民委員會 內務局 機構 及 事務分掌(1947).” 국편, 『사료집』 9권, pp. 64-67;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 7. 3).” 국편, 『사료집』 9권, pp. 234-238; 내무부 치안국 편, 『警察十年史』, 서울: 내무부 치안국, 1958, p. 21.

내무국		보안국		미군정 경무부	
교화부	교화과, 계획과, 노무과, 특별노무과				
시설부	시설과, 서무과, 수도과, 자재과, 도로과, 교량과, 하천과, 건축과, 항만과			통신국	유선과, 무선과
사회부	사회과, 구제과, 보호과				
소방부	소방과, 자재과				

먼저 내무국과 보안국의 중앙부서를 비교해보면, 보안국은 4부, 12과였음에 비해 내무국은 3처, 17부, 54과였다. 내무국은 보안국에 비해 조직규모가 4배 이상 확대되었다. 내무국에 처음 설치된 통운검사부문서부사회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 이관된 업무였다. 내무국은 보안국의 정보과를 확대해서 정보처를 신설했으며, 보안국의 교화과·인사과·소방과를 확대해서 각각 교화부·간부부·소방부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보안국 경비부의 업무를 경비임무별로 세분화하는 한편, 국경경비임무를 특화시켜 국경경비부를 새로 설치했다. 그리고 인민통계부문화부시설부는 보안국에는 설치되지 않았다가 내무국에 처음 설치된 부서였다. 따라서 내무국은 보안국에 비해 정치적 저항, 정치사상, 사회안전, 주민생활, 경비임무에 관한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무국과 미군정 경무부의 중앙부서를 비교해보면, 경무부는 5국, 15과였지만 내무국은 3처, 17부, 54과였다. 즉 내무국은 경무부에 비해 조직규모가 3배 이상 컸다. 내무국과 경무부의 유사한 부서는 검찰부-수사국, 호안부-공안국, 문화부-교육국, 경리부-총무국이었다. 경무부는 내무국의 검찰부와 정보처가 담당하던 일반범죄·정치사건 수사와 정보수집·사찰업무를 수사국에 일괄적으로 전담시켰다. 그리고 내무국 경비처의 9개 부가 담당하던 경비업무를 공안국 경비과에 맡겼고, 내무국 간부부의 4개 과가 담당하던 인사업무를 총무부 인사과에 맡겼다. 그러므로 내무국은 미군정 경무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조직과

인원을 투입해 범죄수사, 정보사찰, 국내·국경경비, 인사행정 등을 취급했다.

또한 내무국에는 미군정 경무부에 없는 인민통계부, 통운검사부, 문서부, 교화부, 사회부, 소방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내무국은 경무부와 달리 주민들의 신분과 민적, 육상교통과 해상교통, 문서취급, 교화행정, 종교단체와 사회취약계층, 소방행정 등에 관한 업무를 고유업무로 맡아서 수행했다. 전체적인 업무내용을 보면, 내무국은 미군정 경무부에 비해 범죄수사와 정보사찰, 국내·국경경비, 주민통제와 주민생활, 사회안전 등의 업무를 특화해서 국내와 국외의 위협과 혼란으로부터 국가건설활동과 정권기관을 안전하게 보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북한의 정치세력이 남한과 달리 1947년부터 경찰을 내각에 준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체계화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사회장악력을 고도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화·사회장악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정부수립 당시 내무국을 확대·개편하는 방식으로 내무성(內務省)을 설립할 수 있었다.

### Ⅲ. 내무국 지방조직의 체계와 규모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이 설립되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시기에 만들어진 지방조직도 개편되었다. 보안국시기에는 각 도인민위원회에 ‘보안부’가 설치되었고, 각 시·군인민위원회에는 ‘보안서’가 설치되었다.<sup>37)</sup> 내무국 설립 이후 각 도인민위원회 보안부는 ‘내무부(內務部)’로 개칭되었으며, 각 시·군인민위원회 보안서는 그 명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보안국시기에 각 보안서 산하에 설치되었던 ‘보안분서(保安分署, 갑·을·병)’는 내무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sup>38)</sup>

시·군 보안서 산하에는 보안분서와 함께 분주소(分駐所)·파출소(派出所)가 설치되었다.<sup>39)</sup> 보안분서는 시·군 보안서의 직할조직으로 시·군에 설치되었고, 분주

37)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 7. 3).” 국편, 『사료집』 9권, p. 230.

38) 보안국장 박일우, “보안기구비밀문서취급규정(1947. 2. 1).” 국편, 『사료집』 9권, p. 64.

39) 내무국장, “보안서원 등용에 관하여(1947. 3. 28).” 국편, 『사료집』 9권, p. 78.

소는 면단위에, 파출소는 리단위에 설치되었다.<sup>40)</sup> 이 중에서 분주소는 “내무기관의 최말단 조직기구로서 내무국 사업의 최전선이며 일체공작의 총집중·완결을 실제로 인민들 앞에 실행하는 부분(部分)”으로 규정되었다.<sup>41)</sup> 그리고 시군에 설치된 보안서는 1947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내무서(內務署)”로 개칭되었으며,<sup>42)</sup> 각 면에도 “면내무서”가 설치되었다.<sup>43)</sup> 즉 내무국의 지방조직은 도인민위원회 내무부 → 시군내무서·보안분서 → 면내무서·분주소 → 파출소로 체계화되었다. 이로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보안기관’은 모두 ‘내무기관’으로 개편되었다.

내무국이 설립되면서 지방조직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는 보안국시기에 있던 문화간부(文化幹部)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보안국시기에 각 도·시·군 보안서에는 보안서장과 함께 문화부서장(文化副署長)이 배치되었다. 문화부서장제도는 1946년 11월에 한차례 변화했다. 보안국은 보안원의 정치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안기관 안에 “정치문화부(政治文化部)”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sup>44)</sup> 이 결정에 따라 보안기관에 정치문화부가 신설되었고, 문화부서장이 정치문화사업을 지도했다.

문화부서장제도는 1947년 2월 22일에 보안국이 내무국으로 개편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 결과 문화부서장이 담당해온 감찰·호안·인민통계·통운·감찰 사업은 내무부서장(副署長)이 취급하게 되었고, 내무서장은 그 외 각 부서를 직접 지도했다.<sup>45)</sup> 내무국은 문화부서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발전시켜 정치사상부문을 전담하는 부서로 내무국 중앙에 “문화부”를 신설했다. 이와 동시

40) 보안처 감찰부 감찰과, “신창라·해방라·대타령 파출소 감찰사업 검열보고서(1947. 11. 2).” 국편, 『사료집』 9권, pp. 337-343; 보안처 호안부 호안과원 주일우, “복명서(1947. 11. 4).” 국편, 『사료집』 9권, pp. 343-344.

41) 보안처 호안부 호안과원 주일우, “평북분주소 사업검열총결보고의 건(1947. 11. 13).” 국편, 『사료집』 9권, p. 350.

42) 내무서의 명칭은 ‘시군’을 빼고 “사리원내무서, 안악내무서, 해주내무서” 등으로 불렸다. 보안처 감찰부원 김득영 외, “양곡자유반출입 및 실태조사보고(1947. 11. 23).” 국편, 『사료집』 9권, pp. 399-403.

43) 북조선인민위원회, 『〈極秘〉道(平壤特別市)市郡人民委員會 機構定員 및 事務分掌』, 평양: 북조선인민위원회, 1947, NARA, RG 242, SA 2009, Box 9, Item 113.

44) 北朝鮮人民保安局, 『北朝鮮保安事業 總結報告』, p. 12.

45) “보안기구비밀문서취급규정(1947. 2. 1).” 국편, 『사료집』 9권, p. 61, 64.

에 각 도 내무부에는 문화과를 설치했고, 각 시·군·면 내무서에는 문화계를 설치했다.<sup>46)</sup>

내무기관의 정치사상부서는 최초로 정치문화부로 기획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문화부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정치기관이 설치된 다른 부문과 명칭을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병부대인 보안간부훈련소에도 ‘문화부(文化部)’가 설치되어 자체적으로 『정치교재』를 제작해 병사들을 교육했다.<sup>47)</sup> 문화부서장제도 아래에서는 문화부서장만이 정치사상사업을 전개했지만,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정치사상사업을 전담하는 실무부서가 출현했다. 따라서 문화부의 신설은 정치사상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대하고 내무원들에게 북한정치세력의 정치사상을 철저히 관철시키려는 정책적 결정이었다. 문화간부제도를 폐지하고 문화부를 신설한 것은 정치사상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무부와 내무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었다.

각 도시·군에 조직된 내무부와 내무서는 각 지방인민위원회의 행정부서 중 하나였다. 단,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의 내무기관은 “내무부(內務部)”였다. 또한 평양에는 평양특별시인민위원회 내무부와 별도로 “평양내무서, 서평양내무서, 동평양내무서, 사동(寺洞)내무서”가 설치되었다. 도인민위원회 내무부에는 내무부장과 2명의 내무차장이 임명되었고, 시·군인민위원회 내무서에는 내무서장과 내무부서장(副署長)이 임명되었다. 면내무서에는 내무서장만 임명되었다.<sup>48)</sup> 지방 내무기관의 간부들은 내무국군대와 동일하게 군사계급을 부여받았다. 도인민위원회 내무부장은 대좌계급이었고, 내무차장은 소좌계급이었다. 도 내무부의 과장은 건설과장만 소좌계급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대위계급이었다.<sup>49)</sup>

도 내무부와 시·군·면 내무서의 부서체제는 다음과 같다.

46) 북조선인민위원회, 『道(平壤特別市)市郡人民委員會 機構定員 및 事務分掌』.

47) 保安幹部訓練所 第二所 文化部, 『1947年度 政治教材』第八部, 평양: 保安幹部訓練所 第二所, 1947,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78.

48) 북조선인민위원회, 『道(平壤特別市)市郡人民委員會 機構定員 및 事務分掌』.

49)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143(1948. 6. 4~6. 11).”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3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p. 440-441.

〈표 3〉 도 내무부와 시군면 내무서의 부서체계<sup>50)</sup>

단위	간부	부서
도 내무부	내무부장, 내무차장(2명)	기요과, 검찰과, 호안과, 공민증과, 정보과, 문화과, 사회과, 경리과, 시설과, 소방과, 서무과, 간부과, 통운검사과
시군 내무서	내무서장, 내무부서장	기요계, 검찰계, 호안계, 공민증계, 정보계, 문화계, 사회계, 경리계, 시설계, 소방계(乙郡에만 설치)
면 내무서	내무서장	기요계, 검찰계, 호안계, 공민증계, 정보계, 문화계, 사회계, 경리계, 시설계

내무부는 총 13개 부서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의 다른 행정부서에도 동일하게 설치된 부서가 있다. 기요과(機要課)는 서기장실, 서무과는 사법부와 양정부, 경리과는 양정부, 간부과는 교육부에도 동일하게 설치되었고 업무내용도 같았다. 가령 내무부 기요과는 “비문서(秘文書) 취급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고, 서기장실 기요과는 “위원회 및 서기장실 기밀에 관한 사항”을 취급했다.<sup>51)</sup> 따라서 이 부서는 다른 행정부서와 마찬가지로 국의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내무부에만 고유하게 설치된 부서는 검찰과, 호안과, 공민증과, 통운검사과, 정보과, 문화과, 소방과, 사회과, 시설과다. 이를 통해 분석해보면, 내무부의 고유한 업무내용은 일반범죄수사, 각종 단속업무, 신분증민적 관리업무, 통운관리업무, 정보·사찰업무와 정치사건수사, 정치문화의 교육·선전사업, 정당·사회단체·대민업무, 시설관리업무 등이었다.

내무부와 내무서에 설치된 정보과와 정보계는 관할구역 내의 정치문제를 전담했다. 정보과와 정보계는 행정적으로 내무부와 내무서의 직속부서였지만, 다른 부서와 달리 실제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했고 사업결과도 정보계통을 따라

50) 북조선인민위원회, 『道(平壤特別市)市郡人民委員會 機構定員 및 事務分掌』.

51) 북조선인민위원회, “各道人民委員會 事務分掌” 『道(平壤特別市)市郡人民委員會 機構定員 및 事務分掌』.

직접 보고했다. 예컨대 평북 정주군내무서 정보계장은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했으며, 사업결과를 내무서장을 거치지 않고 도 내무부 정치과에 직접 보고했다.<sup>52)</sup>

그렇다면 북한의 도 내무부는 남한의 도 경찰기구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북한 도 내무부에 해당하는 남한의 경찰기구는 각 도에 설치된 “관구경찰청”이다. 관구경찰청은 “총무과, 경리과, 공안과, 수사과, 사찰과, 통신과, 공보실, 경찰학교”로 구성되었다. 관구경찰청의 간부는 청장과 부청장이 있었고, 과장과 경찰학교장은 감찰관과 경감이 맡았다.<sup>53)</sup> 북한 도 내무부와 남한 관구경찰청의 유사한 부서는 경리과-경리과, 서무과-총무과, 정보과-사찰과, 호안과-공안과, 감찰과-수사과다.

북한 도 내무부에는 남한의 관구경찰청에 없는 기요과, 공민증과, 통운검사과, 간부과, 문화과, 소방과, 사회과, 시설과가 설치되었다. 즉 북한의 도 내무부는 문서관리업무, 신분증·민적 취급업무, 차륜·선박 관리업무, 정치문화사업,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가 특화되었다. 이에 비해 남한의 관구경찰청은 북한 도 내무부에 없는 통신과, 공보실, 경찰학교가 설치되었다. 즉 남한 관구경찰청은 통신업무, 홍보업무, 경찰간부양성업무가 특화되었다.

도 내무부와 관구경찰청이 각각 특화된 업무를 맡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북한의 도 내무부가 문서·신분·민적·정치사상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것은 북한의 정치세력이 면·리까지 설치된 경찰조직을 통해 주민들의 계급·직업·종교·정치사상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륜·선박·시설관리와 소방업무를 담당한 것은 남한보다 빠른 시점인 1946년부터 소련군에게 이 행정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남한의 관구경찰청이 통신·홍보·경찰양성업무를 맡은 것은 미군정이 국방경비대보다 통신망이 잘 갖추어진 지방경찰을 통해 신속히 정보·사건을 입수·처리하고 지방까지 군정의 시책

52) 김석형 구술, 이항규 녹취정리, 『나는 조선로동당원이요!』, 서울: 선인, 2001, p. 213. 김석형은 당시 평북 정주군내무서 정보계장이었다.

53) 내무부 치안국 편, 『警察十年史』, p. 21.

을 홍보하는 한편 각 도별로 신규 경찰관을 양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한편 노획문서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작성한 “도(평양특별시)사군 인민위원회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이 들어있어 지방 내무기관의 정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도 내무부의 정원은 평남·함남·함북이 각각 98명, 평북·황해강원이 각각 99명이었고, 북한지역 도 내무부의 총정원은 591명이었다. 시 내무서의 정원은 모든 시가 동일하게 55명이었으며, 북한지역 시 내무서의 총정원은 878명이었다. 군 내무서의 정원은 군별로 39~45명의 편차가 있었다. 각 도별 군 내무서의 정원을 살펴보면, 평남은 596명, 평북은 784명, 함남은 588명, 함북은 464명, 강원은 580명, 황해는 704명이었다. 북한지역 군 내무서의 총정원은 3,716명이었다. 북한 전체 도시(평양특별시)·군인민위원회의 내무원 총정원은 5,255명이었다.<sup>54)</sup>

그런데 지방 내무기관의 정원은 지방인민위원회에 설치된 행정부서의 정원과 달랐다. 평안북도인민위원회는 14개 부(部)로 구성되었고, 총정원은 362명이었다. 각 행정부서의 정원을 살펴보면, 내무부 99명, 농산부 52명, 기타 43명, 재정부 23명, 교육부 19명, 양정부 18명, 보건부 15명, 상공부 16명, 선전부 13명, 노동부·도시경영부 각각 11명, 기획부 9명, 서기장실 8명, 총무부·사법부 각각 7명, 간부부 6명이었다.<sup>55)</sup> 내무부 정원은 99명으로 도인민위원회 정원 362명 중 27%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지방인민위원회에 소속된 내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 같은 특징은 더욱 두드러진다. 6개 도인민위원회의 정원은 총 2,142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내무부 직원이 591명(28%)이었다. 평양특별시를 제외한 전체 시인민위원회의 정원 2,185명 가운데 내무서원은 660명(30%)이었다. 전체 군인민위원회의 정원 10,499명 중에서 내무서원은 3,686명(35%)이었다. 북한 전체 도시(평양특별시)·군인민위원회의 정원은 15,167명이었고, 이 중에서 내무원의 정원은 5,255명

54) 북조선인민위원회, 『道(平壤特別市)市·郡人民委員會 機構定員 및 事務分掌』.

55) 북조선인민위원회, “各道人民委員會 機構 及 定員 一覽表.” 『道(平壤特別市)市·郡人民委員會 機構定員 및 事務分掌』.

(34.6%)이었다.<sup>56)</sup> 지방인민위원회 정원 중 내무원의 비중은 도인민위원회 28%, 시인민위원회 30%, 군인민위원회 35%로 하급단위로 내려갈수록 내무원이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정치세력은 지방인민위원회의 행정부서 중에서 내무기관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군·면·리 단위에 더 많은 내무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분·활동·생활·사상에 대한 정보를 여러 층위에서 다양하게 취합하고, 주민들의 일상공간과 정치공간을 지역 단위에서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했다. 주민들에 대한 장악력과 침투력은 국가건설에 매우 중요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군·면·리 단위까지 파악된 주민들의 정보와 공간을 바탕으로 이들을 포섭하거나 통제하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국가체제를 건설하고자 했다.

#### IV. 내무국의 간부와 정치세력 구성

내무국의 전신인 보안국의 국장은 최용건(崔庸健)이 계속 재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47년 2월 1일 당시에 보안국장은 이미 박일우(朴一禹)가 맡고 있었다.<sup>57)</sup> 전임 보안국장 최용건은 1946년 8월 15일에 보안간부훈련대대 부 사령관으로 취임해서 군대창설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국을 지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안국 부국장이 국장을 대리해서 지휘하다가, 박일우가 1947년 1월에 신임 보안국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내무국이 출범한 1947년 2월 22일 당시 초대 내무국장은 조선의용군 출신 박일우가 맡았고, 초대 보안처장은 국내공산주의자 리필규(李弼珪)가 맡았다.<sup>58)</sup> 제2대 보안처장은 1947년 10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박용삼(朴容三)이 맡았

56) 북조선인민위원회, 『道(平壤特別市)市郡人民委員會 機構定員 및 事務分掌』.

57) 보안국장 박일우, “보안기구비밀문서취급규정(1947. 2. 1).” 국편, 『사료집』 9권, p. 61. 이 같은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먼저 해명했다. 연정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p. 225.

58) 보안국장 박일우, “보안기구비밀문서취급규정(1947. 2. 1).” 국편, 『사료집』 9권, p. 61; 내무국, “사치품 단속에 관한 건(1947. 3. 26).” 국편, 『사료집』 9권, p. 76.

다.<sup>59)</sup> 박용삼은 고려인이다.<sup>60)</sup> 내무국 정보처장은 고려인 방학세(方學世)였고, 초대 정보처 부처장은 고려인 장철(張徹)이었으며,<sup>61)</sup> 2대 정보처 부처장은 1947년 6월 당시 고려인 김파(金波)였다.<sup>62)</sup> 내무국 경비처장은 1947년 6월부터 1948년 7월까지 조선의용군 출신 리춘암(李春岩)이 맡았으며,<sup>63)</sup> 경비처 부처장은 1948년 6월 당시 조선의용군 출신 강병학(康炳學)이 맡았다.<sup>64)</sup> 내무국 경리처장은 1948년 2월 당시 리중원(李重垣)이었다.<sup>65)</sup>

내무국의 각 처 산하에 설치된 부서의 책임자는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 기요문서부장은 현운갑(玄雲甲),<sup>66)</sup> 감찰부장은 허건(許健), 호안부장은 김리환(金履煥), 감찰과장은 박우봉(朴宇峰), 기획과장은 장정호(張正浩), 심사과장은 김주섭(金周燮), 통계과장은 김광선(金光善), 청소과장은 원창영(元昶榮), 차륜과장은 유경복(兪敬福)이었다.<sup>67)</sup> 이 중에서 기요문서부장 현운갑은 1947년 1월까지 함북인민위원회 보안부에서 총무과장을 맡았던 인물이다.<sup>68)</sup> 다른 부장·과장의 경력은 알 수 없는데, 현운갑처럼 각 도인민위원회에서 해당부문의 간부로 활동해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소련군 제25군사령부는 내무국을 지원하기 위해 소련 고문을 배

- 
- 59) 보안처장 박용삼, “외사과 인원배치에 관한 건의(1948. 3. 21).” 국편, 『사료집』 9권, p. 107; 내무국장 박일우, “국가기밀보장에 관한 건(1948. 4. 19).” 국편, 『사료집』 9권, p. 110; 내무국 보안처장 박용삼, “국유건물에 거주자 명변경에 관한 건(1947. 10. 15).” 국편, 『사료집』 9권, p. 380.
- 60) 우동현, “1945~1950년 재북 소련계 조선인의 활동과 성격.”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p. 80.
- 61) 내무국 보안처장 박용삼, 정보처장 방학세, “특별야간통행증(1948).” 보안처, 『북내 제329호』, 평양: 내무성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6, p. 566.
- 62) 다음 자료에 1947년 6월 현재 정보처 부처장이 ‘고려인(Soviet Korean) 김파(Kim, Pah)’라고 기록되어 있다. HQ, USAFIK, “ZSNK No.40(1947. 7. 1~7. 15).”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권, p. 257.
- 63) HQ, USAFIK, “ZSNK No.47(1947. 10. 15~10. 30).”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권, p. 462; 내무국장 박일우, “명령: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투쟁에 관하여(1948. 7. 22).” 보안처, 『내무국 보안처 극비문서 잡철』, 평양: 내무국 보안처, 1948. 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64) 국장 박일우, “명령: 비상소집준비에 관하여(1948. 6. 10).” 보안처, 『내무국 보안처 극비문서 잡철』.
- 65) 경리처장 리중원, “사회보험사업 협조의뢰의 건(1948. 2).” 보안처, 『사건관계서류』 (1), 평양: 내무성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66) 내무국장 박일우, “국가기밀보장에 관한 건(1948. 4. 19).” 국편, 『사료집』 9권, p. 110.
- 67) 보안처장 박용삼, “외사과 인원배치에 관한 건의(1948. 3. 21).” 국편, 『사료집』 9권, pp. 107~110.
- 68) 保安部長 李柱鳳, “部員名簿.” 『보안부 사업인계서』, 청진: 함북인민위원회 보안부, 1947. 1.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치했다. 제25군사령부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시기에 보안국을 지도·자문하기 위해 보안·검열지도부 부장 자그루진(N. Y. Zagruzin) 대좌를 파견한 바 있다. 자그루진은 보안국장 고문 자격으로 전체사업을 자문했으며, 보안국장과 함께 보안국에 대한 행정지휘권을 행사했다.<sup>69)</sup>

제25군사령부의 민정기관은 1947년 5월 26일에 공식적으로 “북조선주재 소련민정국”으로 개편되었다. 민정국의 조직은 13개 부서에 총인원 78명으로 구성되었다.<sup>70)</sup> 민정국장은 제25군 군사회의 군사위원 레베데프(N. G. Lebedev) 소장이 맡았다. 민정국에는 북한의 사법·군대·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사법·보안지도부가 설치되었고, 부장, 교관 티슈크 소좌, 선임교관 등 3명으로 구성되었다. 부장은 자그루진 대좌가 맡았다.<sup>71)</sup> 사법·보안지도부장은 내무국장 고문으로 배치되었는데, 행정지휘권이 북조선인민위원회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소련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내무국의 사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당시 각 도에 설치되었던 ‘보안부’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내무부’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도인민위원회 ‘보안부장’의 명칭도 ‘내무부장’으로 개칭되었다. 평남인민위원회 내무부장은 김호(金浩)가 맡았고,<sup>72)</sup> 평북인민위원회 내무부장 김종룡(金宗龍)이 임명되었다.<sup>73)</sup> 강원도인민위원회 내무부장은 리주봉(李柱鳳)이 맡았으며,<sup>74)</sup> 함북인민위원회 내무부장은 동북항일연군 출신 석산(石山)이 맡았다.<sup>75)</sup> 황해도인민위원회와 함남인민위원회의 내무부장은 현재까지 알 수 없다.

내무국 주요간부의 해방 전후 경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경리 처장 리중원, 부장·과장, 평북 내무부장 김종룡의 경력은 고려인·동북항일연군조

69)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 7. 3).” 국편, 『사료집』 9권, pp. 251-253.

70) 김광운 편, 『북조선실록』 1권, pp. 436-437.

71)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서울: 선인, 2018, pp. 387-388, 591.

72) 내무부장 김호, “피심자 이승의 건(1947. 9. 10).” 국편, 『사료집』 9권, p. 381.

73) 내무부장 김종룡, “실문조사 발송에 관한 건(1947. 5. 23).” 국편, 『사료집』 9권, p. 391.

74) 강원도내무부장 리주봉, “헌납력득물 전달의 건(1947. 12. 25).” 보안처, 『사업관계서류』, 평양: 내무성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75) 咸鏡北道內務部長 石山, “證書 I 證書 II 證書 III(1947. 7).” 국편, 『사료집』 20권, pp. 108-121.

선의용군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표 4〉 내무국 주요간부의 경력<sup>76)</sup>

직무	이름	해방 이전 경력	해방 이후 경력
내무국장	박일우 (朴一禹)	1904년 평남 출생. 길림성 연길현 용정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활동. 중국공산당 입당. 1937년 이후 진찰기변구 현장(懸長) 역임. 1940년 중공 중앙당학교 졸업. 1945년 초 연안의 조선혁명군정학교 부교장 겸 당위원회 서기. 1945년 5월 중공 제7차 대표대회에서 조선독립동맹을 대표해 연설. 조선의용군 부사령관 겸 정치위원, 독립동맹 중앙위원 역임.	1945년 11월 동북에서 조선의용군 제5지대 정치위원 역임. 1946년 6월 입북. 8월에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 선출. 1947년 2월부터 보안국장내무국장 역임.
보안처장 (1대)	리필규 (李弼珪)	1909년 함남 신흥 출생. 용정 대성중학 중퇴. 1930년 10월 신흥에서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아체이까 결성 주도. 1931년 3월 함남에서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조직준비회 회의에 참석. 1932년 신흥적색노동조합 재건 주도. 1933년 피검. 1934년 함흥지법에서 징역 5년 선고.	해방 직후 함남지역에서 조선공산당 활동. 1946년 7월 함남인민위원회 보안부장 역임.
경비처장	리춘암 (李春岩)	1900년 황해도 봉산 출생. 황포군관학교 제6기 보병과를 졸업하고 의열단 입단. 1935년 의열단의 남경 조선혁명간부학교 제3기생 교관. 1936년 2월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위원 겸 특무부장. 1935년 5월 국민정부군 남경헌병사령부 중위. 1938년 조선의용대 결성에 참여하고 정치지도원 역임. 1941년 조선의용대 제1.3지대 부지대장으로 화북 진출 주도. 1942~1945년 조선독립동맹 중앙집행위원 역임.	1945년 12월 조선의용군 제1진으로 입북. 1946년 2~8월 조선신민당에서 활동. 1946년 8월 북로당 중앙위원으로 선출(43명 중 13위). 1946년 북로당 황해도당 부위원장 역임.

76) 간부들의 경력에 대한 출처는 다음과 같다. 박일우(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p. 207), 리춘암(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p. 383; 김광운, 『북한 정치사연구』, 서울: 선인, 2003, pp. 380-381), 리필규(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p. 386; 국편, 『사료집』 9권, p. 225), 강병학(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p. 125; 한림대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3권, p. 514), 방학세(장학봉, 『피와 눈물로써 써여진 우리들의 력사』, 워싱턴 D.C.: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미간행원고, 2000. 1. 12), 장철(장학봉, 『피와 눈물로써 써여진 우리들의 력사』;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pp. 380-381), 김택(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한울, 2008, p. 65;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서울: 한울, 2013, pp. 111-112), 김호(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p. 482;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 134;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p. 417), 리주봉(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p. 373;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p. 16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p. 156), 석산(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p. 145, 156; 국토통일원, 『北僞人物』, 서울: 국토통일원, 1971, p. 237; 保安部長 李柱鳳, 『보안부 사업인계서』).

직무	이름	해방 이전 경력	해방 이후 경력
경비처 부처장	강병학 (康炳學)	본명 장중광(張重光). 1914년 평양 출생. 중학교 졸업. 중국으로 망명. 중국 관내에서 조선민족혁명당 행동대원으로 활동. 1942년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에 소속되어 태항산 근거지에서 활동.	1945년 12월 조선의용군 제1진으로 입북. 1946년 강원도에서 지방 보안서장 역임. 1947년 해주시 내무서장 역임.
정보처장	방학세 (方學世)	본명 방 니콜라이 이그나찌예비치. 1914년 러시아 연해주 출생. 1931년 노보키예프스크 9년제 중학교 졸업. 1937년 스페르들롭스크국립종합대학 법학부 졸업.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시검찰소도검찰소 예심원 역임. 1940년 주검찰소 부검사. 1942년 딸피꾸르간주크즐오르다주 책임검사 역임.	해방 직후 북한으로 파견. 소련군 제25군 민정사령부 정치사회안전부 부책임자로 인민정부 정당·사회단체 담당.
정보처 부처장 (1대)	장철 (張徹)	1915년 연해주 출생. 초중학교와 사범전문학교 졸업. 1932년 초중학교 교원 역임. 1937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 타쉬켄트시 구역 당지도원과 국영농장 당조직원 역임. 1940년 소련공산당 입당.	1945년 11월 우즈베키스탄 공산당학교 졸업. 1946년 초 입북. 제25군 민정사령부 산업부 통역관. 1946년 북로당 황해도당 부위원장. 1946년 말부터 보안국내무국 정보처 부처장으로 활동.
정보처 부처장 (2대)	김파 (金波)	본명 김 아나톨리. 1928년 출생. 중학교 졸업. 소련 공산당에 입당. 소련군 입대. 1943년 소련극동군 제88독립여단 파견. 상등병으로 분대장 역임.	1945년 9월 김일성과 함께 입북. 1946년부터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창설요원으로 활동.
평남 내무부장	김호 (金浩)	본명 채국번(蔡國藩). 황해도 출생. 1928년 상해에서 의열단 활동. 1939년 화북 팔로군 제359여단 적구공작과장. 1942년 조선독립동맹 중앙집행위원 선출. 9월 진찰기분맹 적구공작 책임자. 1944년 연안의 조선혁명군정학교 협리원 역임.	해방 직후 조선의용군 압록강지대 지대장 임명. 1946년 초 입북. 1946년 11월 평남 보안부장 역임.
강원 내무부장	리주봉 (李柱鳳)	1905년 함북 성진 출생. 1927년 3월 조선공산당 민주총국 입당. 1927년 10월 '제1차 간도공산당 검거사건' 당시 동만도 수신항 제7야체이카원으로 활동.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집행위원으로 선출. 1946년 함북 보안부장 역임.

직무	이름	해방 이전 경력	해방 이후 경력
함북 내무부장	석산 (石山)	1902년 출생. 1930년에 항일운동에 참가해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 1941년부터 소련극동군 제88 독립보병여단에서 활동.	1945년 9월 함남지역 담당소조에서 활동. 1945년 10월 서북5도당책임자 급 당 열성자대회 대표. 1946년 12월 함북 보안부 감찰과장 역임.

내무국의 중앙간부를 정치경력별로 분류하면 조선의용군 출신, 고려인, 국내공산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의용군 출신은 내무국장 박일우, 경비처장 리춘암, 경비처 부처장 강병학 등 3명이고, 고려인은 2대 보안처장 박용삼, 정보처장 방학세, 정보처 부처장 장철·김파 등 4명이다. 국내공산주의자는 1대 보안처장 리필규 1명이다. 따라서 내무국 중앙은 조선의용군 출신과 고려인이 양분하고 있었다. 도인민위원회 내무부장은 조선의용군 출신, 동북항일연군 출신, 국내공산주의자가 각각 1명이었다. 평북 내무부장 김종룡의 경력은 고려인·동북항일연군·조선의용군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내 출신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도 내무부장은 특정한 정치세력이 독점하거나 양분하지 못한 채 여러 정치세력이 다양하게 등용되었다.

내무국장 박일우는 조선혁명군정학교 부교장 겸 당위원회 서기와 조선의용군 부사령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무정(武亭)을 제외하고 조선의용군에서 최고 위급 군사정치간부였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전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장 최용건과 조선의용군 사령관을 역임한 무정은 1946년 8월 15일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가 설립되면서 각각 사령관과 포병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내무국에 들어오지 않았다.<sup>77)</sup>

보안처장 리필규는 군사경력이 없으며, 일제시기에 함남지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그는 일제시기에 리주하(李舟河)와 함께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정달헌(鄭達憲)과 같은 시기에 함흥에서 적색노동

77) 佐佐木春隆, 「韓國戰秘史」中卷, p. 29.

조합활동을 펼쳤다.<sup>78)</sup> 이 세 명은 해방 직후에 함남지역에서 조선공산당 재건 활동을 펼쳤는데, 박헌영이 이끄는 서울의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노선을 따랐다.<sup>79)</sup> 그러므로 리필규는 조선공산당 중앙계열의 인물로 북조선분국(北朝鮮分局) 결성을 주도한 김일성 등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거리가 있었다. 그는 해방 전후에 함남에서 조선공산당 재건활동을 펼친 경력과 함남 보안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보안처장으로 발탁되었다.

경비처장 리춘암은 정규군관학교인 황포(黃埔)군관학교 보병과를 졸업하고 조선혁명군정학교의 교관을 역임하면서 군사지식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조선민족혁명당 특무부장과 조선의용대 부지대장을 맡아 특수공작과 정보수집을 담당한 정보책임자이자 직접 병력을 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경비처 부처장 강병학은 리춘암과 함께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한 중견급 군사 정치간부였다. 따라서 그는 경비처장 리춘암을 보좌하면서 경비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했다.

정보처장 방학세는 소련의 종합대학 법학부 졸업생으로 주검찰소에서 부검사와 책임검사로 활동한 검사 출신이다. 그는 검찰 경력과 함께 제25군사령부에서 정치사회부문의 정보수집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정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정보처 부처장 장철은 우즈베키스탄에서 8년간 시당의 당간부로 활동한 정치간부였기 때문에 정보처 부처장으로 임명되었다. 정보처 부처장 김파는 제88독립여단 출신으로 정보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없지만, 보안간부훈련대대부 창설요원으로 군사부문에 들어왔다가 소련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정보처 부처장으로 파견되었다.

평남 내무부장 김호는 팔로군(八路軍)과 조선독립동맹에서 주로 적구공작(敵區工作) 책임자로 활동했는데, 해방 직후에 조선의용군 압록강지대장으로 9개 중대를 지휘해 동북지역에서 군인모집활동·치안유지활동을 전개했다.<sup>80)</sup> 그는 이 같은 경력이 반영되어 평남 보안부장을 맡았다가 내무부장으로 유임되었다. 강

78)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p. 375, 430.

79)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개, 1984, pp. 51-52.

80)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pp. 137-138.

원 내무부장 리주봉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서 활동했고, 1945년 10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립 당시에 리주하정달현과 함께 국내공산주의자를 대표해 17명의 집행위원 중 한명으로 선출된 고위급 당간부였다.<sup>81)</sup> 그는 서울의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계열의 인물로, 함북 보안부장을 맡다가 내무국이 설립되자 강원 내무부장으로 이동한 것이다.

함북 내무부장 석산은 해방 직후부터 동북항일연군이 정치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파견한 지방소조원이자, 항일연군 내에서도 서북5도당책임자 급(及) 열성자대회의 정식대표 11명에 포함될 만큼 정치부문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보안국시기에 함북인민위원회 보안부에서 감찰과장으로 활동했다. 보안국에서 감찰과는 북한지역의 정권기관을 전복하려는 ‘친일파·불순분자·반동분자·테러단’에 대한 정보수집과 사찰업무를 담당했다.<sup>82)</sup> 그는 함북인민위원회에서 감찰계통의 간부로 활동해온 경력이 반영되어 함북 내무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런데 내무국의 조선의용군 출신은 동일한 정치계열이 아니었다. 박일우는 연안의 조선혁명군정학교 부교장이던 1945년 2월에 간부심사 총책임자를 맡았는데, 김두봉(金斗奉) 등 국민당지구에서 온 간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 간부심사는 밀정을 색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는 무정과 중국공산당 중앙의 입장에 서있었고, 국민당지구에서 올라온 김두봉, 최창익(崔昌益) 등 북상파(北上派)<sup>83)</sup>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다. 팔로군에서 활동한 김호도 기본적으로 중공 중앙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반면에 리춘암은 북상파로 간부심사 당시에 고급밀정 혐의를 받았으며, 강병학도 북상파였다. 무정세력과 북상파는 1943년부터 조선독립동맹 내부에서 치열한 분파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sup>84)</sup>

내무국의 조선의용군 출신은 해방 전의 분파투쟁으로 인해 응집력이 약했다.

81)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p. 163.

82) “제1회 각도 보안부 감찰과장회의록(1946. 7. 16).” 국편, 『사료집』 9권, pp. 266-271.

83) 북상파란 중국국민당지구에서 활동하다가 1939~1941년에 중국공산당지구인 화북지대로 이동한 조선청년전위동맹과 조선의용대의 일부세력을 뜻한다.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서울: 나남, 2001, pp. 83-98.

84) 분파투쟁과 간부심사의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pp. 189-233, 303-305.

그러나 조선의용군 출신은 1947년 당시 북한의 정치공간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항일연군 출신에 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정치세력이었다. 또한 내무국의 국내공산주의자인 리필규와 리주봉은 해방 직후에 조선공산당 서울 중앙과 병립하기 위해 김일성의 주도로 설립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에서 서울 중앙의 입장을 따랐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내무국의 중앙간부는 전체적으로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정치적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내무국 중앙간부의 직책을 보면, 각 정치세력은 내무국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 조선의용군 출신은 내무국의 국장과 내무국군대를 관할하는 경비처를 책임졌고, 고려인은 내무국의 정치·정보부문을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국내공산주의자는 내무국의 치안부문을 책임졌다. 특히 내무국군대와 정치·정보부문은 각각 조선의용군 출신과 고려인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내무국 간부구성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내무국 중앙에 임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활동한 군사지휘기관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대부에서 동북항일연군 출신은 총사령관, 문화부사령관, 총참모장, 통신부장을 맡았고, 조선의용군 출신은 포병부사령관, 간부부장, 작전부장을 맡았다. 그리고 고려인은 후방부사령관, 부총참모장, 공병부장, 경찰부장, 공병부부장, 통신부부장, 검찰소장을 맡았으며, 국내공산주의자는 대열부장과 정치보위부장을 맡았다. 대대부는 내무국과 달리 항일연군 출신이 핵심직책인 총사령관·총참모장·문화부사령관을 모두 담당했다. 항일연군 출신은 이를 통해 군대의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장악했다. 이와 함께 조직운영의 실권 중 하나인 인사권은 의용군 출신이 담당했다. 고려인들은 대대부의 최대세력이었지만, 소련군 군인이자 대대부 간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의 지휘권에 접근할 수 없었다.<sup>85)</sup>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서는 항일연군 출신 최용건이 보안국장을 맡았

85) 김선호,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38호, 2017, pp. 297-298.

으며, 국내공산주의자 문종묵(文宗穆)이 보안국 경비부장을 맡았다.<sup>86)</sup> 평남 보안부의 1대 부장은 의용군 출신 리지강(李志強), 2대 부장은 항일연군 출신 최용진(崔勇進), 3대 부장은 의용군 출신 김호, 부부장은 의용군 출신 리권무(李權武)가 맡았다. 평북 보안부의 1대 부장은 국내공산주의자 한웅(韓雄), 2대 부장은 의용군 출신 장지민(張志民)이 맡았으며, 부부장은 국내공산주의자 차정삼(車正三)이었다. 함남 보안부장은 의용군 출신 리필규, 함북 보안부장은 국내공산주의자 리주봉, 황해 보안부장은 국내공산주의자 차용제(車鎔濟)가 맡았다. 강원 보안부의 부장은 알 수 없고, 부부장은 항일연군 출신 허봉학(許鳳學)이었다.<sup>87)</sup>

항일연군 출신이 보안국장을 맡은 것은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었지만, 확인된 도 보안부장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의용군 출신(장지민·리필규·리지강·김호)과 국내공산주의자(차용제·리주봉·한웅)였다. 물론 항일연군 출신 최용진이 잠시 평남보안부장을 맡고 허봉학이 강원보안부 부부장을 맡았지만 항일연군 출신은 둘 밖에 없었다. 의용군 출신과 국내공산주의자가 도 보안부장을 맡은 곳은 북한지역 6개 도 중에서 5개 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안국의 간부구성은 항일연군 출신이 국장을 맡고, 의용군 출신이 각 도·시·군의 주요간부를 맡으며, 일부 국내공산주의자들이 진출해 있는 정치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sup>88)</sup>

내무국도 조선의용군 출신, 동북항일연군 출신, 국내공산주의자, 고려인 등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내무국은 보안국과 달리 중앙부서에 항일연군 출신이 임명되지 않았고 새롭게 고려인이 다수 임명되었다. 무엇보다 박일우가 내무국장을 맡으면서 보안국과 달리 조선의용군 출신의 영향력이 급속히 강화되었다. 또한 보안무력을 관할하는 보안국 경비부장을 국내공산주의자가 맡았던데 비해, 내무국군대를 관할하는 내무국 경비부장은 조선의용군 출신이 맡았다. 이로써 내무국군대는 주로 조선의용군 출신이 관할하게 되었다.

86) 『正路』 1946년 1월 3일; “第2回 各道 保安部長會議錄(1946. 7. 3).” 국편, 『사료집』 9권, p. 260.

87) 김선호, 『조선인민군』, pp. 201-202.

88) 김선호, 『조선인민군』, pp. 202-204.

1947년 당시 인민집단군을 지휘하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사령관 최용건과 문화부사령관 김일을 비롯해 동북항일연군 출신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반면에 내무국은 내무국장 박일우와 경비처장 리춘암을 비롯해 조선의용군 출신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내무국의 중앙간부는 전체적으로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정치적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내무국이 설립된 이후에 인민집단군은 항일연군 출신이 책임지고 내무국은 조선의용군 출신이 책임지는 군권(軍權)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정치세력 구성은 북한의 정치공간에서 공통적으로 정치연합체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특정부문에서는 하나의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부문별 정치연합체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북한의 정치세력은 1947년 2월에 내무국을 설립해서 정치활동 탐지, 사회안전과 주민생활 관리, 경비활동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공간과 정치공간을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또한 내무국이 설립되면서 행정기관이 군사화되기 시작했고,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조선의용군 출신이 각각 인민집단군과 내무국군대를 책임짐에 따라 무력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정보·방첩·특수공작을 전담하게 되면서 스탈린(Stalin)시대의 사회관리체제가 북한의 지역과 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 V. 맺음말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에 비해 정치적 저항, 정치사상, 사회안전, 주민생활, 경비임무에 관한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다. 내무국은 미군정 경무부에 비해 범죄수사와 정보사찰, 국내·국경경비, 주민통제와 주민생활, 사회안전 등의 업무를 특화해서 국내외의 위협과 혼란으로부터 국가건설활동과 정권기관을 안전하게 보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내무국은 기본임무인 치안유지 업무와 사회안전 업무 외에도 미군정 사법부에서 관장하는 교화소 업무와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국경경비 업무를 함께 수행했다. 따라

서 내무국은 치안권과 일부 사법관·군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사회 영역에 압도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내무국은 보안국이 담당했던 군대창설과 ‘보위’ 임무가 대대부로 이관된 이후에 치안유지, 국내·국경경비, 사회관리에 관한 임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세력은 지방인민위원회의 행정부서 중에서 내무기관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군·면·리 단위에 더 많은 내무원을 배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신분활동·생활에 대한 정보를 여러 층위에서 다양하게 취합하고, 주민과 사회를 지역 단위에서 관리하고 통제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내무국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정치연합체제였지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과 달리 중앙부서에 항일연군 출신이 임명되지 않았고, 내무국의 중앙간부는 전체적으로 동북항일연군 출신과 정치적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었다. 무엇보다 박일우가 내무국장을 맡으면서 내무국과 내무국군대에 조선의용군 출신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권력 내부에서 인민집단군과 내무국군대를 각각 항일연군 출신과 의용군 출신이 책임지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졌으며, 특정부문에서는 하나의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부문별 정치연합체제’가 형성되었다.

결국 북한의 정치세력은 국가건설기에 내무국을 설립해서 국내·국경의 경비체제, 정치활동·사상동향 조사, 정치사상업무, 사회 관리, 주민생활 관리 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공간과 정치공간을 더 치밀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탈린시대의 정보·방첩·특수공작 방식이 내무국을 통해 북한의 지역과 사회에 확산되면서 강제와 설득을 배합한 북한식 사회관리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sup>89)</sup> 북한식 사회관리체제는 1948년 9월 9일에 정식 국가기구로 내무성이 설립되면서 그 원형이 만들어졌다. 내무성의 조직·간부와 사회관리방식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긴다.

89) 북한식 사회관리체제는 조직적 통제, 물리적·제도적 통제(강제), 이념적·사회적 통제(설득)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를 참고 바람.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pp. 10-51.

## 참고문헌

- 강만길·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 고려서림 편집부,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 1권, 서울: 고려서림, 1998.
-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5·7·9·20·30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1989·1990·1995·1998.
- 국토통일원, 『北僞人物』, 서울: 국토통일원, 1971.
- 기광서, “북한 무력형성과 북소관계.” 『中蘇研究』 28권 3호, 2004.
-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서울: 선인, 2018.
- 김광은 편, 『북조선실록』 1권, 서울: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 2018.
- 김광은, 『북한정치사연구』, 서울: 선인, 2003.
-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서울: 한울, 2008.
- 김국후, 『평양의 카레이스키 엘리트들』, 서울: 한울, 2013.
- 김남식 외 역음, 『韓國現代史資料叢書』 11, 서울: 돌베개, 1986.
- 김남식, 『남로당연구』, 서울: 돌베개, 1984.
- 김선호,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38호, 2017.
- 김선호, 『조선인민군: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서울: 한양대출판부, 2020.
- 김일성, 『김일성전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서울: 명지출판사, 2000.
- 내무부 치안국 편, 『警察十年史』, 서울: 내무부 치안국, 1958.
- 보안처, 『내무국 보안처 극비문서 잡철』, 평양: 내무국 보안처, 1948. 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보안처, 『북내 제329호』, 평양: 내무국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보안처, 『사건관계서류』 (1), 평양: 내무성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보안처, 『사업관계서류』, 평양: 내무성 보안처, 194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북조선인민위원회, 『〈極秘〉道(平壤特別市)市·郡人民委員會 機構定員 및 事務分掌』, 평양: 북조선인민위원회, 1947, NARA, RG 242, SA 2009, Box 9, Item 113.
- 북조선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 평양: 북조선인민위원회, 1947, NARA, RG 242, SA 2009, Box 9, Item 113.
-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北朝鮮人民會議 第一次會議 會議錄』, 평양: 勞動新聞社, 1947.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서울: 선인, 2005.
- 성준혁, 『북한 인민보안부에 관한 연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 연정은, “북한 정치보위국의 형성과정.” 『史林』 61호, 2017.
-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서울: 나남, 2001.

- 이재훈, 『소련군사정책』,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7.
- 잔프랑코 쫓지 저, 박상섭 역, 『근대국가의 발전』, 서울: 민음사, 1995.
-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장학봉, 『피와 눈물로써 써여진 우리들의 역사』, 워싱턴 D.C.: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미간행원고, 2000. 1. 12.
-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23권 춘천: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 保安幹部訓練所 第二所 文化部, 『1947年度 政治教材』 第八部, 평양: 保安幹部訓練所 第二所, 1947, NARA, RG 242, SA 2009, Box 2, Item 178.
- 保安部長 李柱鳳, 『보안부 사업인계서』, 청진: 함북인민위원회 보안부, 1947. 1.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노획문서 사본.
- 北朝鮮人民保安局, 『北朝鮮保安事業 總結報告』, 평양: 北朝鮮人民保安局, 1946. 11. 19.
- 北朝鮮人民委員會 宣傳部, 『金日成 重要報告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樹立의 길』, 평양: 民主朝鮮出版社, 1947. 1. 1.
-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譯, 『韓國戰秘史』 中卷, 서울: 兵學社, 1977.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Officers of the Interior Bureau of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1947~1948

Seon Ho Kim(MND,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The Bureau of Internal Affairs(BIA) of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has significantly expanded the affairs of political crime, political ideology, resident life, and domestic security compared to the Security Bureau of the North Korean Provisional People's Committee. The BIA played a role in defending national construction activities and government agencies by expanding crime investigation, information activities, security activities, and resident control tasks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In addition, the BIA exerted overwhelming control over the social sphere of North Korea by acquiring part of the jurisdiction and military command along with security. North Korea's political forces have placed the largest number of local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the police station, and have collected various information from residents to control the people and society at the local level.

Meanwhile, with the appointment of Park, Il-woo as the head of the BIA, the influence from the Korean Volunteer Army(KVA) group expanded rapidly and the influence from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NAJUA) group rapidly decreased. At the same time, North Korea's political forces separated the military's command by directing the people's army from the NAJUA group and directing the army of the interior bureau from the KVA group.

Eventually, North Korea's political forces were able to establish and manage the daily and political spaces of the people more closely by establishing the BIA. Also, as the information gathering method of the Soviet Union and the way of dealing with the political crimes of the Soviet Union spread to the North Korean region and society through the BIA, a North Korean social control system began to form.

Keywords: North Korean Army, Army of the Interior Bureau, Korean Volunteer Army,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North Korean Social Control System, People's Commissariat for Internal Affairs(NKVD), Kim, Il-sung, Park, Il-woo

투고일: 2022년 02월 10일, 심사일: 2022년 07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23일